

전원경

영동한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16-17 세기 음악과 미술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역사적 사건은 '종교 개혁'이었다. 종교 개혁의 시작은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수인 마르틴 루터(1483-1546)가 교황의 지나친 사치와 면죄부 판매 등을 반박하는 95 개조의 의견서를 교황에게 보내면서 시작된다. 이 종교 개혁으로 인해 유럽은 신교와 구교를 믿는 지역으로 갈라졌고, 양편의 예술가들은 각기 새로운 종교에 걸맞은 새 예술형식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신앙이 공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맹렬히 신앙을 선전하는 예술작품을 제작해야만 했다.

교황 율리우스 2 세(재위 1503-1513)는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군주보다도 더 강력한 전제군주였다. 그는 스스로를 제 2 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로 여겨 자신의 교황명 역시 '율리우스'로 지었던 인물이다. 율리우스 2 세는 갈리아를 정복한 카이사르같이 프랑스 세력을 이탈리아에서 몰아내고 이탈리아 전부를 강력한 교황의 국가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실제로 그의 재위기간 중에 교황령의 영토는 크게 넓어졌고 교황은 페루지아와 볼로냐의 영유권을 얻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졌다. 교황령인 톨파에서 백반석 광산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백반은 당시 직물의 염색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화학물질이었는데 16 세기 당시 백반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투르크에서 수입하고 있었으므로 공급이 원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교황은 로마를 위대한 르네상스의 도시인 동시에 모든 르네상스 도시의 궁정들 중에 가장 화려한 궁정으로 만들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가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것은 성 베드로 대성당의 재건이었다. 율리우스

전원경

(예술 전문 작가·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시티대학교 런던(City University London)에서 예술비평 전공으로 석사를, 글래스고 대학교(University of Glasgow)에서 문화컨텐츠산업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월간 『객석』, 『주간동아』 기자로 일했으며 예술 3 부작 시리즈인 『예술, 역사를 만들다』, 『예술, 도시를 만나다』, 『예술, 인간을 말하다』를 비롯해서 『페르메이르』, 『클림트』, 『런던 미술관 산책』 등 예술과 문화사에 관련된 11 권의 책을 썼다.

2 세는 도나토 브라만테를 로마로 불러들여 성당 건축의 임무를 맡겼고 이후 150 년간 계속될 성 베드로 대성당 개축 작업이 시작된다. 성 베드로 대성당이 완공되는 데에는 12 명의 건축가, 22 명의 교황, 그리고 150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와 함께 율리우스 2 세는 자신의 거처인 시스티나 궁의 2 층 방들을 장식하는 일을 위해 우르비노 출신의 젊은 화가 라파엘로 산치오를 불러 서재를 비롯한 여러 방의 벽화를 그리게 했고, 동시에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에게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와 천정화들을 그리게 했다.

백반석 광산과 메디치 가의 자금으로도 베드로 대성당 증축에 드는 돈을 모두 댈 수는 없었고 마침내 가톨릭 교회는 성당을 짓기 위해 1514 년부터 다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다. 종이조각에 인쇄된 면죄부는 이 종이를 사는 사람에게 즉석에서 교황이 죄를 사면해주는 제도였는데, 면죄부를 사면 미래의 죄마저도 탕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교황청의 논리였다. 1517 년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가 확대되자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작센 내에서 면죄부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자 작센의 군중들은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수 마르틴 루터를 찾아가 군주와 교황 중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루터는 면죄부는 죄를 사하는 효력이 없다고 대답했다. 루터는 면죄부에 대한 공개 질문 서한 95 조를 교황청에 보내고 이 서한의 독일어 번역문을 군중에게 돌렸다. 마침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전에 힘입어 이 질문서는 불과 2 년 만에 독일 내에서 30 만부가 퍼져나갔다.

독일 내의 여론은 루터를 지지했고 이에 힘을 얻은 루터는 레오 10 세의 소환을 거부하기에 이른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 세와 프리드리히 선제후도 루터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침내 루터는 로마를 바빌론으로,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선언하면서 공개적으로 가톨릭에 반기를

들었다. 종교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특히 '신성로마제국' 즉 신앙의 수호자이자 교황의 신하 격인 황제가 교황권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종교 개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카를 5 세는 1527 년 1 만 2 천명의 용병을 이끌고 클레멘스 7 세가 다스리던 로마를 침공했다. 경제적 문제가 종교를 넘어선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예술의 탄생

종교 개혁의 여파는 특히 독일, 플랑드르의 음악과 미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프로테스탄트는 가톨릭의 화려한 성화와 성당 증축을 금기시했고 성상 장식도 허용하지 않았다. 교회의 모습은 간소하다 못해 점점 더 앙상해져 갔다. 성직자의 복장도 검은색으로 통일되었다. 루터, 칼뱅, 츠빙글리 등은 가톨릭의 성상 숭배를 우상 숭배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성체 성사 역시 부정했다. 루터는 지나친 미술 장식이 교회의 타락을 불렀다고 보고, 예술을 통해 신앙을 유도하는 것을 신앙의 타락으로 여겼다. 이로 인해 개신교회 안에서는 종교와 미술 간의 밀월 관계가 영원히 사라졌다. 결국 종교 개혁으로 인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예술가들은 그 종류는 달랐으나 엇비슷한 위기 상황을 맞은 것이다. 가톨릭 진영 예술가들이 반종교 개혁의 검열에 걸리지 않기 위해 환상과 신비, 그리고 우울한 마니에리스모 경향으로 옮겨가는 동안, 루터교는 성상, 성화 등을 아예 부정하고 예배음악을 키우는 데에만 집중했다. 중세 이래 가장 중요한 회화 소재였던 종교화를 더 이상 그리지 못하게 된 플랑드르의 화가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장르를 개발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독일, 플랑드르 지방의 종교 개혁이 꼭 화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미친 것은 아니었다. 종교에 쏟던 화가들의 에너지가 보다 다양한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종교 개혁이 이뤄진 지 한 세기가 채 지나지 않아 독일과

플랑드르 지방을 중심으로 초상화, 실내 풍경화, 세속화, 정물화 등의 장르가 생겨났다. 이와 함께 개신교 예배에서는 가톨릭의 성체 성사가 없어지면서 설교와 음악이 예배의 중심으로 부각되었고, 그 중에서도 회중이 부르는 합창음악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

종교 개혁은 16 세기 유럽인들에게 커다란 재앙인 동시에 교회의 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절차였다.

루터의 종교 개혁은 일종의 정치, 경제적 혁명으로 변화했고 프로테스탄트라는 새로운 종파가 생겨난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종교 전쟁의 격랑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종교 개혁을 계기로 해서 유럽 국가들이 교황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하나의 유럽'이 아닌 개별 국가로 향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와 함께 오직 종교로만 향하던 화가들의 에너지가 보다 새롭고 다양한 장르로 향하게끔 되었다. 루터파 교회에서 성사 대신 회중이 함께 부르는 코랄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으로써 인류는 바흐가 작곡한 수많은 칸타타와 코랄, 수난곡이라는 귀중한 수확을 얻게 된다.

King Henry 가사

King Henry, was sent for / all in the time of her need / King
Henry he came / In the time of her need
King Henry he stooped / and kissed her on her lips; / What's
the matter with my flower, / makes her eyes look so red?
King Henry King Henry / will you take me to thee / to pierce
my side open / And to save my baby?
Oh no Queen Jane / such thing shall never be / to lose my
sweet flower / for to save my baby
Queen Jane she turned over / and fell in a swoon / Her
side it was pierced / And her baby was found
How bright was the morning / How yellow her bed / How
costly was the shroud / Queen Jane was wrapped in
There's six followed after, / and six carried her along, / King
Henry be followed, / with his black mourning on.
King Henry he wept / and wrung his hands 'til they're sore /
The flower of England / shall never be no more

일시

2025 년 11 월 4 일(화) 오전 10 시 30 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 녹음할 수 없습니다.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